

# 남원 밤하늘에 수놓는 미디어파사드

남원다움관, 5일부터 한 달간 매주 금·토요일  
‘남원 자전거 이야기·이몽룡의 꿈’ 2부 상영

남원시는 남원의 기억을 기록으로 보존하는 남원다움관에서 미디어파사드를 오는 5일부터 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미디어파사드는 2021년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디자인벨리)에 선정되어 국비 2억원으로 조성한 ‘남원있따’ 콘텐츠 중 하나로, 성춘향을 향한 이몽룡의 사랑을 다채로운 색과 화려한 영상으로 남원다움관 외벽에 재현했다.  
미디어파사드는 건물 외벽 등을 스크린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야간 볼거리로, 남원다움관에서는 5일부터 한 달간 매주 금·토요일 3차례(19:00/19:30/20:00) 1부: 남원 자전거 이야기와 2부: 이몽룡의 꿈을 15분 간 상영할 예정이다.

남원 대표관광지인 광한루원, 남원예촌 인근에 위치한 ‘남원다움관’은 남원의 근현대 기록 전시 및 각종 체험콘텐츠를 갖추고, 매주 화요일에서 일요일 운영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앞으로 남원 근현대의 삶을 기록으로 보존하는 남원다움관 취지에 맞게 지역의 이야기를 지속 발굴하여 다양한 남원의 삶을 재현한 미디어파사드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원주 시장은 “아름다운 남원 밤하늘 아래 표현되는 미디어파사드가 지역의 고유한 이야기를 다양하게 연출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다움관 미디어파사드 포스터.

# 김다운 한국화 작가 개인전

9~30일까지 기린미술관서 ‘오늘이 설레는 이유’ 주제 전시

전주 기린오피스텔 3층에 있는 기린미술관(관장 이현옥)에서는 오는 9일부터 30일까지 ‘오늘이 설레는 이유’라는 주제로 젊은 한국화 작가 김다운씨의 작품 20여점이 선보인다.



김 작가는 2012년 졸업 전시를 시작으로 찾잔을 주제로 하는 ‘오늘있따’ 시리즈를 계속 진행 중이다. 전통 장지 기법을 사용하여 현대를 살아가는 한 명의 한국인으로 그려 수 있는 작품을 그리고자 노력하고 있는 작가이다.

특히 이 작품들은 찾잔의 형태를 강조하는 실루엣 시리즈와 오늘의 모습을 긍정하는 화해 이미지 시리즈로 이루어져 있다. 2018년 이후로 화해 작업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 전시에서도 이러한 작품을 중심으로 선보인다.

이번 전시 제목이 ‘오늘이 설레는 이유’인 까닭은 오늘의 새로운 모습을 변화무쌍한 계절감으로 하여금 시각화 한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감각을 통한 계절감은 오늘을 인식하게 하는 새삼스러운 심철이다. 계절이 바뀌며 변하는 바람, 빛 그리고 우리의 모습에서부터 감각할 수 있는 오늘의 모습을 이와 같이 공감각적인 측면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김 작가는 “최근의 주요 작품을 이렇게 한데 모아 전시를 하게 되어 그저 기쁘다. 저는 제가 감각하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찾잔에 담아 눈에 보이지 않는 오늘을 시각적으로 인지하게끔 채우고자 하는 것

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보시는 분들께 특별한 감흥을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고 소박하게 이번 작품전의 소감을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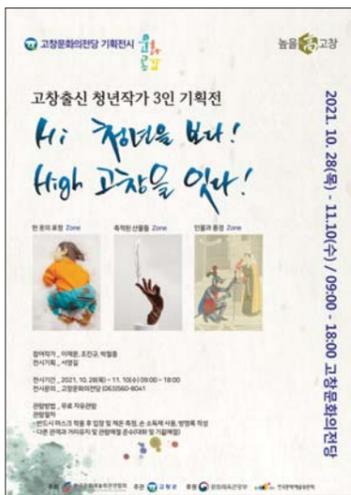
김 작가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사를 마치고 이번에 박사과정에 진학하려고 하는 학구적인 작가이다. 이번 개인전은 갤러리 탐(2019)과 라레트(2019), 희수갤러리(2021), 아름다운치바박물관(2021)에 이어 5번째 하는 개인전이다. 이외에도 2인전, 3인전, 그룹전 등 열정적인 작품 활동을 하고있는 신진 작가이다. /김재훈 기자

# 고창문화의전당, 깊어가는 가을 문화예술 ‘풍성’

예술가곡의 밤 음악회 · 고창출신 청년작가 기획전 진행

고창군이 로비음악회와 고창출신 청년작가 기획전을 진행하며 깊어가는 가을을 예술의 향기로 물들이고 있다.  
앞서 고창군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하는 2021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기획제작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높을고창, 예술가곡에 물들다! 예술가곡의 밤(9일·16일 오후 7시30분, 고창문화의전당 로비)은 이탈리아 가곡과 독일 가곡을 연주하는 예술가곡의 밤을 선보여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고창문화의전당의 레퍼토리 가곡음악회로 정착시키고 있다.  
가을의 정취를 담은 가곡의 향기를 한껏 발산한 예술가곡의 밤 로비음악회는 2회를 마감하고, ‘시대를 초월한 가곡열전’, 이탈리아 가곡 ‘낭만주의 시대의 선율’ 등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공연을 만날 수 있다.  
공연 회수를 거듭할수록 입소문을 타고 관객이 점점 증가해 로비를 활용한 음악회의 새 지

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Hi 청년을 보! High 고창을 있다! 고창출신 청년작가 기획전(10일까지, 고창문화의전당 전시실)은 어린 시절 지역에서 나고 자라며 작가의 꿈을 키운 3명의 지역출신 청년작가들의 꿈이 펼쳐진 조각, 한국화 등 청년작가들의 예술적 시도와 고유한 예술세계, 실험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는 기획 전시를 열었다.  
조각가 이재문 <현 웃의 표정>, 한국화가 박철중 <인물과 표정>, 조각가 조진규 <축적된 산물들> 등 3인 연합전으로, 작가별 주제와 전시 존을 구분해 전시하고 있다.  
고창군은 예술가와 군민이 미술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을 열어나가고 있다.  
이번 로비음악회 공연과 전시는 무료이며, 문의는 고창문화의전당(063-560-8041)으로 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출신 청년작가 기획전 포스터.

# 우석대 도서관, 김애란 작가 초청 열린 특강 진행

‘소설, 삶을 담은 그릇: 단편 속 인물들이 머문 공간을 중심으로’ 주제

우석대학교 도서관이 김애란 작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문화관 2층 아트홀에서 열린 특강에서 김 작가는 ‘소설, 삶을 담은 그릇: 단편 속 인물들이 머문 공간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재학생 및 지역주민 등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애란 작가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소리로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가끔은 소리를 말로 바꾸는 과정과 소리를 언어화시키는 과정에서 시련이 있을 거로 생각한다”며 “그때는 이야기 해 주면 잘 전달될 수 없는 진실과 만나게 하는 게 소설이 해주는 좋은 일 중 하나 같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만의 책 지도”를 가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평소 말을 하면서도 상투적인 말

을 사용하지 않는지 살펴보고 ‘말을 대접해야 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말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이와 더불어 김 작가는 좋은 책을 고르는 법에 대해 “그전이 아니어도 좋은 책은 다음 독서를 유발하는 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좋아하는 책을 딱 하나 말하긴 어렵지만, 조세희 작가의 ‘남산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애란 작가는 2002년 제1회 대산대학 문학상에 ‘노크하지 않는 집’이 당선되어 문단에 나온 김애란 작가는 2005년 대산창작기금과 같은 해 최연소로 제38회 한국일보문학상을 받았다. ‘칼자국’으로 제9회 이효석문학상을, ‘침묵의 미래’는 2013년 이상문학상 대상작으로 선정된 바 있다. 주요작품으로 소설집 ‘달려라, 아비’, ‘침이 고인다’, ‘서울, 어느 날 소설이 되었다’, ‘두근두근 내 인생’, ‘비행문’ 등이 있다. /정은성 기자

# 전주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문학 ‘온다라 인문주간’ 행사 가져

전주대학교는 한국고전번역원 연구소 온다라 지역 인문학센터는 최근 ‘거리두기의 시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문학’을 주제로 온다라 인문주간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문주간을 통해 처음 선보인 온라인 강의 ‘한국인의 집, 한옥의 삶’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최명희문화관과 공동주관한 공모전 ‘함께하는 공간의 시간’, 인문체험 ‘함께하는 생생지락(生生之樂)’은 전주 한옥마을 내 위치한 최명희문화관에서 진행됐다. 공모전과 체험을 통해 도민들이 직접 전라북도의 인문학에 대해 재해석해보고 지역자산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서정화 센터장은 “올해는 접근성이 좋은 온



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장소를 활용해 작년 대비 참여율이 증가했다는 점과 이벤트 등을 도입해 홍보에 힘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인문학, 함께하는 인문학’을 실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고창군-다산북스, 고창신재효문학상 출판 협약

고창군이 3일 오전 (주)다산북스와 출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고창신재효문학상의 당선작 출판을 위해 다산북스와 상호간 협력관계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유기상 고창군수와 김선식 다산북스 대표가 서명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대한민국의 출판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다산북스와 출판 협약을 체결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협약으로 고창신재효문학상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동반자이자 출판

기업과 자치단체간 협력의 모범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올해 첫 시행되는 고창신재효문학상은 전국 공모를 통해 고창을 소재로 하는 창작장편소설 분야 공모전이다. 당선작에는 대한민국 문학상 최고 수준에 상응하는 500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지게 된다. 최종당선작은 12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고창신재효문학상이 향후 영화, 드라마, 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로도 제작돼 대한민국



을 넘어 전세계에 고창을 알리는 문화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남대 학생 초청 현직자 멘토링 특강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ESG 경영 실천을 위해 전남대학교 문화관광학부 학생 30여 명을 초청, ‘현직자 멘토링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직자 멘토링 특강’은 전남대학교와 김대중컨벤션센터 주최, 찾아가는 MICE 진로 현장 견학 행사의 일환으로 재단의 문화·경

영·관광·MICE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재단 현직자들의 직무소개와 전남대학교 문화관광학부 학생들의 질의응답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기전 대표이사는 “재단이 지역의 미래를 위한 ESG 경영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 은혜상사(주)

사회적기업

작업복 단체복

여성기업

판촉물 기념품

안전화 안전용품

사무용 가구 파티션, 앵글, 선반 제작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명찰, 로고 각종 인쇄

대표전화 063)227-4610    N A V E R    은혜상사(주)    Q

팩스번호 063)227-4619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03, 1층